

[出]

:나가다, Out

대학으로 가다, 약간의 불안감을 동반한
자유의 냄새, 떠나는 별들에게 물었지 '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고', 멋지게
나가기,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로 Out!

[家]

: [명사] 호적에 등록된 친족의 한 단체,

갑갑한, 벽의, 불합리한, 벗어날 수 없는 끈
박진 운명적 단어, 따스한, 지켜주는, 유일무
이한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가리키기도 함.
정의 할 수 없는 그 무엇, 감춰, 안.

[家]

[家]

: [명사] 호적에 등록된 친족의 한 단체.

갑갑한, 벽의, 불합리한, 벗어날 수 없는 끈
먹진 운명적 단어. 따스한, 지켜주는, 유일무
이한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가리키기도 함.
정의 할 수 없는 그 무엇. 관습. 안.

차례

CONTENTS

가족에 대한 회고

가(家)

家



Intro. Cage (유다)

1. 아버지 (제이)
2. 너의 굵은 등에 서린 나의 증오- 잃어버린 아버지
에 대한 단상 (유다)
3. 2003년, 현재 44살, 아직 젊으신 우리 어머니는 잠
을 자기 위해 매일 밤, 술을 드신다 (수달)
4. 엄마를 이해한다는 것 (도박)
5. 양종맞고 감직한 내 동생 이야기 (허크)
6. 평범하기 짝이 없는 형은 나에게 (T.J)
7. 언니네 칼럼- 가족에 대한 욕망이 유죄라면 모두
가 죄인 아닐까 (이박혜경)

Outro. 가족사진 (유명한 인간들)

Intro. Cage 유다



나 고등학생, 오늘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소주 두병 나뭇로 원샷 했다.
겨울이라 그거 먹고 얼어죽으면 이골저골 안보고 깨끗하게
세상 뜰 꺼라고.

반항. 아니.

리버 피닉스? 아님 좀더 묵은 제임스 딘? 아~니.

호밀밭의 파수꾼 본 적 있는가? 거기 나오는 홀든 콜ฟิลด์ 자식처럼 불
합리한 세상을 향해 벼락한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줄 만한 여유정도만
있었어도. 하하.

그 정도 여유만 있었어도 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 나 다소곳한 지방명문 여고생, 남들 아자할 때 기숙사
옥상에 박혀 웅얼서 소주 마셨다.

그리고 영화 'Shine' 포스터처럼 몸을 활처럼 쫓히고 'freedom'이라고 고
래고래 소리질렀다.

운명이라는 이름의 '나쁜 피'가 타트처럼 끈적하게 내 몸을
굴렸던 그 때.

나는 도무지 아무 것도 감당할 수 없었다.

풍각쟁이에 폭력모리배에 돈까지 날려먹고

어디론가 도망 다니던 아버지와

새벽부터 새벽까지 집 안팎에서 일하다 잡초처럼

시들시들 말라가던 여빈 어머니, 사라진 오빠.

'TV속 다시다 콩고 안에서 너무나 따뜻하게

나를 바트는 가족이란 이름.'

나의 안전한 풍자, 나의 미친 재장,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만 같았던 이름, 가족.

그 시절 나를 괴롭혔던 것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곧 시작할 이야기는 이 '가족'에 대한 것이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종래의 친구들, 살던 지역, 고등학교라는 제도
권 교육 등과 함께 20년 동안 나를 지배해온 이 가족이란 세계와 처음으로
로 '아무~' 비슷한 것을 행하게 되는 자리이지 않은가? 이 책자의 일부

분, 가(家)가 출(出)직전의 모두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아버지는 어머니는 동생들은 오빠는 형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들의 가족이란 이름은 온전한 것인지를 한번쯤 돌이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즘엔 어느 순간 귀를 숨움치로 틀어막고 자신에 대해 말하기에 정신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타인의 삶을 보거나 이해하려는 노력들, 인간대 인간으로 타인의 상처를 보듬으면서도 아래로 보거나 동정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이 노력은 물론 내게도 어렵다.)

위와 같은 진지한 노력을 쏟으며 이 책을 보는 당신에게 500억 로또 복권어치의 행운이 있으리.

7.

아버지 이야기

/제이
/유다

아버지

제이

세 살 되던 해에 원인을 몰라 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보다못한 어머니가 무당한테 팔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당을 엄마로 2년을 살았다.

열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이며 뛰며 다 팔고 그 여자랑 도망갔다.

어머니는 거의 실성했고 큰아들과 큰딸은 돈을 벌어야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때부터 도라지를 캐다가 팔았다.

열 다섯 살 되던 해에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누나가 중학교엔 보내졌다.

열 일곱 되던 해에 고등학교에 가겠다는 아들을 할아버지가 거의 반 죽여놔다.

아들은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덤뻤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솔을 해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열 아홉 되던 해에 어머니가 전 재산을 날렸다.

졸업장 하나 받고 싶었던 아들은 공장으로 일하러 가야했다.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20만원을 맡겨두고 군대엔 갔다.

어머니는 20만원을 훔쳐가 버렸다.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원망하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 후, 아버지는 병든 몸으로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난 속에서 희망 하나로 버둥버둥 살아왔다.

마흔 여덟이 되던 해에 사업에 실패했다.

아내와 자식들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슴이 뻥뻥하는 것 같았다.

마흔 아홉이 되던 해에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 나가있고, 아내는 곁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읊다가 이가 다 솟아버렸다.

원이 되던 해에 출가를 위해 공부를 한다.

너무도 치이고 치인 세상은 너무 버겁다.

자식들은 조용하게 동의하고 아내는 잠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는다.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에게 대한 글을 50년도 넘게 고쳐 썼다.

허려하면 할수록 되지 않는 게 아버지에게 대한 이해이다. 막판에 딸은 생각했다. 그냥 담담하게 아버지의 인생을 되짚어 보자. 비로소 딸은 아버지를 조금 이해한다. 뒤로 돌아서서 웃고 숨어서 우신다는, 그 아버지를...

너의 굵은 등에 서린 나의 증오

-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단상

유다

‘아버지, 아버지…… 씹새끼, 너는 입이 열이라도 말 못해.’

고등학교생이었던 나, 이성복의 이 한 줄의 첫구에 매료되어 시인이 되겠다 마음먹었다. 풀리지 않는 독기가 몸 안에 가득 서려 비실비실 아파 가면 때였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죽음의 이미지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다. 무심코 열어본 어머니의 옷장 서랍 속에서, 부엌의 파아란 칼날아래에서, 물이 가득 차있는 녹색 욕조 안에서, 한 손에 다 쥐어지지 않을 만큼의 검은 머리카락과 붉게 퍼지는 다량의 피를 보았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집안은 비릿한 냄새로 가득하고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을 열면 검게 식은 엄마의 사지가 각각 굴러다니는 방상에 일상을 사토 잡혀 지내면 나의 성장기.

열일곱, 이혼을 이야기했던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소주에 절은 입을 열어 구취를 풍기며 말했다. 검고 딱딱해진 손에는 파아란 칼날이 범벅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년아, 다 죽자. 우리는 죽는 거다.” 엄마를 나를 찌르려는 과장된 몸짓, 열어놓은 나의 눈과 귀와 입, ……아버지, 차라리 날 죽여줘요. 나의 더러운 피를 하나도 빠짐없이 도려 가주세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날 아버지의 칼

부림 덕분에 그로부터의 도망이라는 이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꿈을 이루었다. 어머니는 이혼을 선택했고 나는 고등학교 기숙사를 들어갔다.

어제 와서 말하지만 아버지는 씹새끼였다. 하지만 사회는 그에게 씹새끼인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막강한 힘판을 주었을 뿐. 내가 그를 씹새끼라 호명할 조금의 힘도 나눠주지 않았다.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경과 인내와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신성한 혼인과 아버지라는 절대적이란 존재만이 정당했다. 정당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샌드백이기를 거부한 이혼녀인 나의 어머니와 그 자식인 나였다. 이곳은, 선생은 함부로 나불거렸다. 혼자 사는 질 나쁜 여자, 아빠 없는 애, 환경이 나쁜 같이 놀면 안 좋은 아이,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건 무분별한 분노와 콤플렉스잉여의 마음뿐이었다.

폭력과 투기와 외도, 보증, 카드 빚으로 그는 나이 씹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게 거대하고 무거워 보였던 아버지는 텅 빈속을 드러내고 쉽게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일 원어치의 가치도 없는 폐기를, 산업예비군으로 전락한 아버지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대가를 차례대로 치렀다. 늙어서 검게 포그라든 그의 몸을 따스하게 봐줄 가족도, 혹은 입과 맥을 기본적인 경제력도, 그의 재빨을 믿어주고 지지해 줄 친구도, 은행의 신용도 그에게는 없었다.

다나면 고등학교 근처에서 빚을 얻어 포장마차를 시작한다고 해서 한 번 보러 간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한낮의 포장마차 안은 지난밤의 소주냄새와 반라의 여자가 전시되어 있는 몇 달 전의 달력과 음식 찌꺼기가 달라붙은 냄비 같은 아버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연민과 열마간의 값싼 동정, 구차함과 비참함 같은 감정들이 범벅이 되어 구역질이 올라왔다.



끓어오르는 아버지께 대한 분노와 연민은 동전의 앞뒷면같이 따라붙었다. 굵은 등허리에 쫓는 분노도 연민도 똑같이 내 것이 아닌 것 마냥 느껴졌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머뭇고 웃 먹으면 안타깝고 불쌍한 거야. 저자는 죄 값을 받는 거야.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최면에 날마다 시달리며 흔들리는 자신을 혹사시켰다.

대학에 와서 나는 아버지로 인해 페미니즘을 공부했다. 아버지로 인해 시를 쓰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그를 향한 독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아파서, 내 몸이 중독되어서 그 독기를 풀기 위해 공부했다. 산뜻하게 결과만을 이야기하자면 아버지를 '증오'하기에 시작했던 페미니즘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하고 '아해'하게 되는 음모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 내가 증오해야 할 대상은 가부장적 권력의 단맛을 본 소시민적 남성의 전형적 인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러한 폭력이 당연시되고 묵인되는 총체적인 이 '사회'라는 것.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내 몫을 남긴 채로 빈 공간에 쏟아낸 이 혼란이 혼란 이야기를 황급히 집는다. 일 어버린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를 다시 찾거나 안는 일은 있을 것 같다. 이제 내게 남겨진 몫은 아직 멀 자란 내게 양분을 주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뿐이다.

2. 어머니 이야기

/수달
/도발

2003년. 현재 44살.

-아직 젊으신 우리 어머니는
잠을 자기 위해 매일 밤, 술을 드신다.

수달

2003년. 현재 44살. 아직 젊으신 우리 어머니는 잠을 자기 위해 매일 밤, 술을 드신다. 술은 한 모금도 못 드시던 어머니가 제일 처음 술을 드신 날은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던 그 여름부터였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무서워 도망을 치지 않아도, 어머니를 때릴까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었다.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했었고, 항상 불만이 가득 했으며, 항상 어머니를 의심했다. 가장으로서의 능력이 없던 아버지는 집에서만큼은 큰 어른이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항상 목소리가 크셨으며, 그래서 항상 화를 내셨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모셨다. 집에 쫓겨 떨어져도 밥상에는 항상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생선이 올라왔었고, 아버지가 늦으시는 날은 밤이 새도록 주무시지 않으셨으며, 새벽에 들어오신 아버지를 위해 다시 밥을 하셨다. 아버지가 유치장에 계신 날들은 차가운데서 주무시는 아버지를 생각하시며 추운 겨울에도 연탄을 때우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옷수선을 하시며 약간씩 모은 돈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업이나, 아버지가 벌이신 여러 소소한 일들을 수습하는 데 쓰였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으면 아버지는 점점 어머니에게 난폭해지셨다. 최저식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데,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어머니는 점점 그런 아버지에게 마음이 떠나가고, 자식들마저 점점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



아버지는 술에 취하신 날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셨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날들도 많아졌다. 그달수록 어머니와 나와 동생은 "우리끼리"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고, 아버지라는 위치는 집에서 더욱 멀어졌다.

결국은 두 분이 싸우실 때, 한번도 말리지 못했던 16살의 딸이 어머니를 가로막고 아버지에게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니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듣게 되고, 경제력도 없고, 난폭한 주사에, 다른 여자와의 바람까지, 이혼을 요구할 이유는 확실했다.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난 후에도, 몇 년간은 아버지와 같이 살았었다. 그때도 어머니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위치만이라도 아버지에게 바쳤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아버지라

는, 남편이라는 권위가 없어도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우리끼리"는 더 잘 살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라는 이름은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의 어머니는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 물론 경제 사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늦게 다닌다고 재빨리를 면지는 사람도, 그렇게 싫어하시면 매운탕을 끓여드릴 일도, 술을 먹고 들어올까 봐, 자식 앞에서 욕담전을 불사하며 싸우시는 모습을 보일까 걱정하실 일도 없으니 예전의 초췌한 모습은 없어지고, 배에 술살만 뚱뚱히 붙어있다.

아버지라는, 남편이라는, 가장이라는 이름이 없어져도 어머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하시다. 혼자 사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나와 내 동생을 키우고 계신다. 이제 두 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지금에 아버지가 불쌍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도 언제나 강하신 어머니를 보면서부터이다. 한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라는(제일 나이가 많은, 남자라는) 이름이 그런 자격을 갖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아주 여렸던 남자에게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나마 아버지를 조금 이해하게 된다.

우리 어머니는, 비록 밤마다 힘들게 살아오신 지난날 때문에 술을 드시긴 하지만, 혼자서 이제 22살의 큰딸과 18살의 아들을 키워오신 강한.... 여자다....

엄마를 이해한다는 것

도발항상 안정된 생활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마음을 싫어하는 극히 보수적인 학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은 더욱 싫어하였다. 물론 며칠정도 여행가는 것은 좋아하였지만,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내 성격대로라면 당연히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는, 10년이 넘도록 살아온 나의 고향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려고 했을 터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까지 완전히 바뀔 정도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신경전은 대학 원서를 쓰게 되면서 극에 달하였었다. 어머니와 나는 어렸을 적부터 원수지간처럼 서로 싸우던 사이였고, 그 이유는 나의 '어머니는 이래야한다'는 보수적인 생각과, 어머니의 '왜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일을 하고, 자식들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해야하나'라는 생각의 충돌이었다. 지금이야 당연히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었다. 내가 어머니를 볼 때 같은 여자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만약 내가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도 당연히 어머니같이 내 인생을 더욱 존중했을 터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죽네 사네 어머니랑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요리도 못하고, 침착하지도 않고, 멀렁거리면서 일만 벌이는 어머니가 내 눈에는 가시었다. 결국 어머니

외의 다름에 못 이겨 대구가 아닌 다른 곳에 학교를 가게 되었고(이런 사유로 대학을 타지에서 보내게 되는 학생들이 꽤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태어나서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안성으로 온지 하루만에 집밖으로 나가면 고생이라고 누군가가 내게 해주었던 말을 그대로 증명하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다름은 그렇게 조금씩 줄어들었다. 끈질기고 모진 모정이 이런 것이었는가? 대구 떠나가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던 나의 굳은 결심은 안성 온지 하루만에 물거품이 되었고, 철부지 같은 내가 걱정이 되어 매일 전화를 하시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 28살에 시집을 와서 보수적인 시어머니의 등쌀에 못 이겨 개방적인 성격의 어머니는 우울증과 화병으로 점점 정신이 메말라갔다. 거기다 초남성충백작(의인) 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는 어머니를 심하게 구박하셨고, 그게 화가 되어서 어머니는 피를 토하신 적도 있다고 하셨다. 지금에 와서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자들이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겪는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나로써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다. 대학에 입학한지 일년이 지나가면서 어머니의 히스테리컬한 말투와 자신의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또 다른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 같다.

앙증맞고 깜찍



3. 여동생 이야기

/허크



한 (!!)

내 동생 이야기

1학년 2반 허어크~♥

새삼스레 동생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조금 당황했다. 어떤 글을 쓸 때 동생이나 아버지, 어머니를 주제로 삼았던 것은 초등학교 이후로는 처음이었기에. "그럼 초등학교 독후감에서 요구했던 그런 것들

써야 하는 것인가?" 하는 잠깐의 아노미를 슬며시 지나치고 나서야 제청신을 차렸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쓰라는 거야?"

"뭐 이것저것 다.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번 O·T에 나눠줄 책자에 실을 글인데, 가족관계에 대한 글이 필요한데 마침 네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지. 여동생 있는 사람이 없거든."

"-.-"

여하튼 난 여범의 인간으로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귀



.diane arbus.

엽고 감뭉 발랄하다 못해 엽기적이기까지 한 내 동생이야기를 해야 쓰겠다.

어릴 때 기억엔 동생녀석은 매우 귀엽고 작고 퉁퉁해서 처음 보는(강조!!)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조용하고 내성적인 캐릭터여서 종래에는 음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음... 뽕뽕하지는 않지만... 음... 뽕뽕까...-.-:: 커다랗고 새까만 두 눈에선 눈물이 금방이라도 뚝 떨어질 듯한!! 까만 인디언인형 같은 녀석이었다.(왜 예뻐지.)

뽕뽕까, 전체적으로 아주 까매서 나와는 아주 대조적인 녀석이었다. 나는 어릴 때는 많이 하얀 편이어서 외로부터 동생과 나는 항상 비교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뽕, 2살 터울 자매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비교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덕분에 동생과 나의 어린 시절은 매우 암울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는 어린 시절엔 동생이나 언니라는 것은 경쟁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계속적으로 둘을 비교하는 부모님 밑에서는, 둘 사이에 애정관계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미운 정이 오히려 우는 것이고, 먹고살기 위한 잠깐의 휴전관계랄까. 그것뿐. 허구한날 싸우고 울고(주로 동생, 99.8% 그 때나 지금이나 나는 한 힘 했던 것이다. -.-::) 빼앗고 때리고, 아님 난 나가서 놀고, 동생은 집에서 놀고.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나는 매일 밖에서 해가 질 녘까지 놀았는데 동생은 집에 있다가 엄마가 언니 찾아오라고 하면 온 동네가 떠나가게 귀여운 목소리로 "언니야-엄마가 밥 먹으러 집에 들어오래. 언니야-"하는 소리를 지르며 날 찾으러 다녔다. 나는 그 소리가 들리면 더욱 멀리 도망가서 놀거나 친구가 다 집에 들어가면 그제야 동생 앞에 불쑥 나타나 태연함을 가장하며 녀석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 ㅎㅎㅎㅎㅎ, 그렇다. 동생을 괴롭힌 기억밖에 없는... 이 암울한 어린 시절...ㅎㅎ..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나쁜 놈이었던 것이다!! 왜 이런 글을 쓰라고해서 느

맛없이 어린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사! 그것도 제일 최악의. 하지만 녀석은 정말 괴롭혀주고 싶게 귀여웠어!

이런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은 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동생은 아주 급격히 우울한 성격의 아이가 되어갔고 나는 여전히 미친 듯이 놀고만 있었다. 너무나 우울해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동생과 나 사이는 휴전은 아니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사라진 그런 기분이었고 그렇다고 사이가 좋아진 거냐고 하면, 절대. 동생은 정신 없었고 나는 방관 놀이였던 것 같다. (중간중간 생각해 보면 동생의 말쑥은 이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 유창한 말쑥에 놀려 얼마나 당했단가!! 항상 내가 시비를 걸지만 결국엔 본전도 못 찾고 뺨뺨 옮기 일 수 있다.) 동생이 4학년일 때 부모님께서 사업을 시작하셨다. 가게를 하나 하셨는데 살던 곳과 꽤 떨어져서 나는 동생과 집에서 있고 부모님은 일주일이나 이 주일에 한 번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해 주시고 가셨다. 동생과 같이 있는 예민한 나이의 1년은 아주 큰 것이었다. 처음에는 한 달은 아주 미친 듯이 싸웠던 것 같다. 그 다음부터 냉전. 한 달에 한번 서로 목소리 듣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같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길게 느껴지는 한 두달 이었다. 어느 순간엔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그 녀석이 열 번을 참고 내가 한 번 참는 (동생의 주장!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을 좋게 말하면 양보를 배운 거고, 정확히 말해서는 포기한 배운 것. 여하튼 그것은 둘 사이에 아주 좋은 현상이었고 만화와 영화 쪽의 취미가 기막히게 잘 맞았던 우리 둘은 트러블이 없자 아주 멋진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니 부모님이라는 존재도 좀처럼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사람사랑사람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한학, 너무 늦나, -.-) 동생과의 연합전선이 더욱 견고해 졌다. 여러가지 심부름 돈 좀쳐 놔다가 만화책 빌려오기, 18금 만화 밤새도록 보기, 끔찍한 새벽에 만화책 빌리러가기

동등 너무나 즐거운 나날이었으면 것 같다. 만화 캐릭터에 대한 동생과의 대토론도 매우 흥미롭고,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구선 동생에게 더 많이 애정을 키웠던 것 같다.

요즘 동생과 내 관계는 여전히. 애교 많고 귀여운 동생과 눈을 부라리며 만화를 보거나 즐겁게 미소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불사르곤 한다. 생각해 보면 동생과 있을 때 가장 많이 웃는 것 같다. 집에 오는 유일한(?) 보람! 환회에 찬 시간!

무엇보다 동생과의 관계에서 매우 마음에 드는 점은 친구라는 점. 서로 이를 부르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점. 쿨루 여하튼, 난 20년동안 알고 지낸 이 친구를 매우 사랑한다. 녀석 또한 나를 사랑하리라 의심치 않는다.

"나한테도 니 동생같은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 하. 하. 하.

아무나 이런 동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p.s : 허저저려. 이 글을 읽고 나를 시스터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 설마 없겠조?

4. 형 이야기

/T.J

평범하기 짝이 없는 형은 나에게

T. J

2년 사이로 태어난 형과 나는 어릴 적부터 우애가 깊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형제가 그렇듯 학교 다닐 때는 무척이나 싸웠다. 한번은 무척 심하게 싸워 거의 일년 동안 대화조차 안하고 지낸 적도 있다 - 어쨌든 일년 동안 말없이 지내온 것이 형과 동생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 것 같기도 하다. 말없이 지내온 그 해 겨울, 형은 수능을 봤고 대학에 낙방을 해 재수를 하게 되었다. 그때쯤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집에는 '새 어머니'라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때부터 형과 나는 조금씩 서로의 사이에 대해 예민하게 고민했다.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우리 형과 친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주 나를 불러 집안 이야기와 형과의 사이를 물어보며 나와 형과의 관계를 좋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셨다. 그분의 영향에 조금씩 형과 나는 서로를 아껴주고 존경하게 되었다.

형이 대학에 입학할 하여 집에서 떨어져 지내는 동안 난 수능이란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형은 대학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시기에 나에게 대한 관심 손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할 만큼 부담이 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내가 대학을 입학해서 그 곳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도 형은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형과 나는 지내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입용고시 합격을 위해 군 입대도 미룬 채 공부를 하고 있다. 2번 떨어졌

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에도 내가 형
을 위로해주지는 못함정 오하려 형
은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생각해
보면 형이 나에게 신경을 쓰느냐고 공
부에 집중을 못한 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사실 자기 살아가는 것도 많이
힘들 것인데 형없는 동생 챙기느라고
더 힘들었을 것이다.

어쨌면 너무나 평범하기 딱이 없는
형과 나의 사이이지만 평범한 것이 가
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난
그렇게 느끼고 싶다. 형이 단지 찌줄

이라서 그러기보다는 나와 함께 오랜 시간동안 같은 시련을 안고 20여
년을 살아왔기에 서로 기댈 수 있는 어찌 폭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 달리 형에 대해 뭐라 할 말은 없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형과
나의 사이는 두 살 차이의 2년이 아니라 앞으로 겹쳐지는 수많은 시간과
함께 움직이는 관계이다. 그러기에 난 지금 현재의 형에게 하고픈 말만
이 있을 뿐이다.

"형, 얼마 전 형의 모습은 많이 마르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더군. 내
색은 안했지만 나 많이 속상하고 안타까웠어. 형이 정말로 무엇이 힘든
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잘 될거라 난 믿어. 항상 내가 형 생각한다는 거
있지 말고""



언니네(www.unninet.co.kr) 칼럼 -

가족에 대한 욕망이 유죄라면 모두가 죄인 아닐까

이박혜경/ toggiya@freechal.com

아이엠에프 직후에 이런 광고가 광고대상을 받았다.

최근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원장찌개를 끓이던 어머니가 "노이 아버
지 요즘 참 힘드실 거야" 한다. 식탁에서 아들이 "아버지, 먼저 드세요"
하자 "내가 이 맛에 산다"면서 호호해 하는 아버지. 그리고 이어지는 "가
족은 고향입니다 고향의 맛 다시다"라는 나레이션.

이 광고를 보면서 다 같이 배고름 시간인데 왜 아버지가 먼저 먹어야
하느냐고. 돈벌이가 가치 있는 것이라면 찌개, 끓인 어머니의 공은 그만
뒀 하냐고.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냐고 화를 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
히려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붙였을 것이다. 성별 본업에 터를 둔
소위 정상적인 가족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그토록 짙다. 이 광고에서
가족은 고향, 돌아갈 곳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된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

서 따뜻한 환대를 받는가? 직장 가진 어머니가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

가사 노동과 양육의 이중 부담을 감수하면서 직업적 성취를 이룬 여성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한 게 뭐 있냐"는 소리를 골짜 들는다. 가사일을 소홀히 했다면 비난은 더욱 거세다. 남성의 직업 노동은 가족과 국가를 위한 것으로, 여성의 직업 노동은 가족의 질박한 생계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남성은 공적인 존재로 여성은 사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직업 노동을 하는 여성이 비난을 면하려면 가사 노동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 스스로 뼈저린 죄책감을 가짐으로써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차적인 임무라는 사회의 기강을 확언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여자들의 성공담 뒤에 "잘 참아 준" 남편과 아이들에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이 반드시 따라붙는다.

얼마 전 딸이 간통한 어머니를 인터넷을 통해 사회에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가족에 대한 이러한 욕망이 때로는 얼마나 양광진 여성 비난과 혐오로 되돌아오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 딸의 분노는 어머니의 이혼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에 어머니의 간통이 있었다. 간통하고도 이혼을 요구한 어머니에게 격분한 딸은 어머니의 도덕적 타락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가사일을 소홀히 하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했다는 사실 등을 들었다.

법률상 이혼 사유로서의 간통죄는 배우자에게 속한 처벌권이다. 사건 당사자인 어머니는 이미 그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왜 피해 당사자도 아닌 그 딸이 어머니를 여론 재판의 공장에 세우려 했는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성에는 오염(pollution)의 이미지가 입혀

져 있고 어머니는 무성적인(asexual) 존재로 상상됨으로써 혐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간통한 어머니는 동그한 네모처럼 모순어가 된다. 그 낯설이 딸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더욱 혐오감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이 분노와 혐오의 감정은 그녀의 것인가? 그것은 어머니의 간통에 분노를 일으킬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우선 속해 있다. 이 때문에 그 딸은 간통 사실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 분노를 정당화해 주는 또 한 가지 요소는 가족 안에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의 위계적 구분을 자연화하고 정당화하는 이른바 정상 가족(normal family)에 대한 욕망이다. 근대 가족의 애정 중심성, 즉 친밀성에 대한 욕망은 친밀성 속에 내재한 권력구조를 은폐함으로써 권력 구조의 일부가 된다. 공동체 논리가 때론 내부의 차이를 은폐함으로써 억압의 논리로 탈바꿈하곤 하는 예가 있다. 가족 공동체 주의는 그 심리학의 뼈대이다. 가족에게 기반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처벌. 때로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더욱이 근대 가족의 낭만화는 아동의 지위를 격상시켰고 그것의 결과로서 자애로운 모성이 창안되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가 자신을 잘 돌보아 주지 않았노라고 증언하는 딸을 보면서 가족에서 아동의 지위 상승이 여성에게 부담으로 남아와 꽃히는 장면을 보고 있다. 심지어 그 어머니는 남편의 바람과 구타를 은폐함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 주고 결국 가족을 위해 노동하는 아버지상에 힘을 보태었으니, 누구를 탓하라 우리가 유지해 온 정상적인 가족에 대한 욕망이 유죄다.

그 딸의 분노는 변심한 애인에게 항포를 부리고 바람난 부인을 폭행하는 남편의 분노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우리는 그녀와 얼마나 다른가. 요컨대 딸의 분노의 출원지도 정당화의 맥락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고발한 딸을 보면서 분노 이전엔, 아니 분노는 고사하고, 차라리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다.

딸은 어머니가 결혼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한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중 노동이나 아내구타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나는 전심으로 그녀가 어머니보다 더 나은 선택을하기를 바란다.

집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간통을 했다고 어머니를 고발하는 딸, 그녀에게 여자가 죽어야 집안이 산다고 누군가 알려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살려면 가족에 대한 욕망을 전복시켜야 한다. 그녀가 그것을 깨닫는 날 자신을 용서하기를.

글. 이박혜경/ toggiya@freechal.com

여성학을 공부하고 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사실이라는 청문 받아들은 게 후회스럽다. 흔히 산문 사실은 산문사의 의견을 대표하지만 이 사실은 성격이 다르다--고 마음대로 생각해 버렸다. 개인 의견 이상의 무게감 없이 읽히기를 바란다.

Outro. 가족사진

사진 1.

가족은 전쟁으로 보호의 주권 단위이다.

그러나 보호를 독점함으로써 가족은 다른 형태의 보호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가족은 전쟁으로 공유의 단위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만의 공유를 주장함으로써 다른 관계들은 이해관계로 만들었다.

가족은 전쟁으로 친밀성의 장소이다.

그러나 근친간의 친밀성에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바깥세계는 차고 넘칠한 것이 되었고, 친족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관계와 신뢰가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보호와 공유와 사랑은 가족이 그것을 자기만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좀더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다.

-미셸 바렛, 메리 매킨토시

사진 2.



1980년대 후반, 부산, 경남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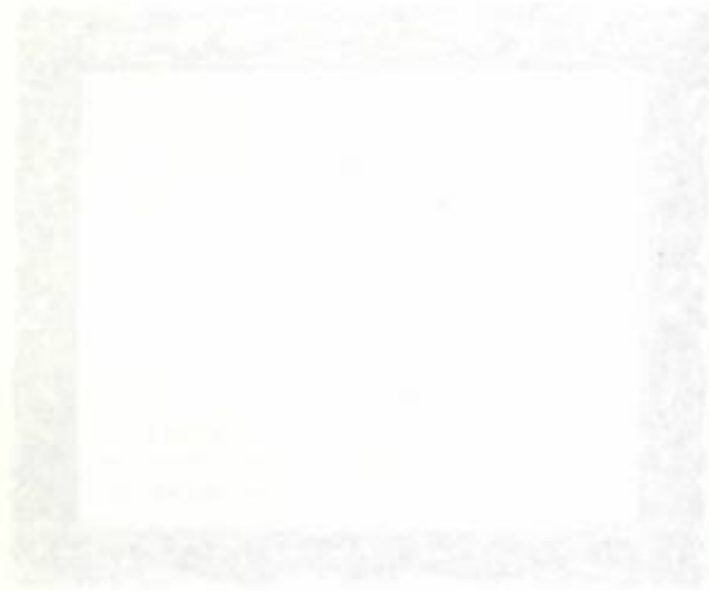


-멜 폭스, 행복한 페미니즘

사진 4.



출판사: 문학출판사, 서울



[出]

:나가다, Out

대학으로 가다, 약간의 불안감을 동반한
자유의 냄새, 떠나는 별들에게 활약지 '나
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고', 멋지게
나가기,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로 Out!



차례

CONTENTS

쌘박한 대학 생활 즐기기 프로젝트

1.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

▶ 내 남자친구 이야기 (박하)

▶ 채팅으로 만난 그녀와의 장면 (T.J)

▶ 나의 사랑스런 짝꿍, 그녀이야기 (무명)

▶ 신문기사 하나, 사랑에 우는 자여, 당신은 사랑을 모른다 (이종걸, 신문기사)

▶ 소개팅과 미팅에 대한 그리고 만남에 대한 짧은 생각 문

치들 (여우)

▶ 첫 번째 소개팅—그녀와의 만남 (레인보우 피쉬)

▶ 연애에 대한 단상 (min)

1.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

▶ 내 남자친구 이야기 (박하)

▶ 채팅으로 만난 그녀와의 장면 (T.J)

▶ 나의 사랑스런 짝꿍, 그녀이야기 (무명)

▶ 신문기사 하나, 사랑에 우는 자여, 당신은 사랑을 모른다 (이종걸, 신문기사)

▶ 소개팅과 미팅에 대한 그리고 만남에 대한 짧은 생각 문
치들 (여우)

▶ 첫 번째 소개팅—그녀와의 만남 (레인보우 피쉬)

▶ 연애에 대한 단상 (min)

2. 여행(旅行), 약간의 불안감을 동반한 싱싱한 자유의 냄새

▶ 제이의 우당탕 중국여행기 (제이)

▶ 우리도 한 가보자, 가까운 동남아와 일본 샘플 일정 만들
기 (텔레-비타민 편집위원회)

▶ M, T 및 여행 추천—안면도, 가보셨나요? (텔레-비타민
편집위원회)

▶ 학교에서 제공하는 해외 어학연수 및 세계교육기행 프로
그램 (학생지원처)

3. 대학 1년 최고의 선택, 텔레-비타민 총여학생회

▶ 100% 활용하기 Catch me, if you can (옥스)

▶ 김빠진 콜라, 미지근한 냉면, 재미없는 일상에 기운을 즐
게! 페미니즘 학회로부터 온 인사 (레몬)

▶ 텔레비타민 잡지 편집위원회 신생 수습기자 모집!



7.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내 남자친구 이야기

박하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내 남자친구 박은 경마론 몸에 키는 멀대 같이 큰 대구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나 역시 대학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우린 처음 연 같은 화과 동기로 만났다. 처음 등교하는 날 늦잠을 자고 시간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한 시간이나 지각을 했다. 급하게 강의실 문을 여는데 좌측 전 강의실 한 쪽에서 한 여학생이 자리를 찾고 있는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 여학생 옆에는 한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고 우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 남자아이가 지금의 남자친구가 될 것이라곤 그때까지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고 보면 인연이란 게 이런 것 같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명이 무리 지어 다니게 되었고 그러면서 정도 많이 들었다. 사귀기 전에 우리는 역시 그 무리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였다. 시간이 흘러 입학한지 거의 두 달이 다 되었을 무렵, 그가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별다른 감정을 느끼진 못했지만 그런 그의 마음이 실진 않아. 과 동아리 엠터를 가서 사귀게 되었다. 처음 하는 연애여서 그랬을까. 아니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친구 사이였기 때문이었을까. 갑작스럽게 친구에서 연인으로 된다는 게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주위의 시선과 놀림(?)이 한편으론 좋기도 했지만,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남자친구는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성격과 조금 다르게 나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과 동아리 사진을 찍을 때 커를 터를 입자고 조르고, 보

보를 해달라며 졸라대는 적도 있었다. 그런 남자 친구가 귀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찜찜했던 것 같다.

처음 하는 연애여서 나는 걱정도 많이 했었다. 남자친구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어떻게 해 줘야 하는 건지 참 생각도 많이 하곤 했다. 사람에게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함과 설렘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상대를 대할 때 서로 진심으로 대한다면 굳이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다. 2년 가까이 그와 연애를 하면서 나는 많은 점을 느꼈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연애를 하면서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과 그리고 그것은 대화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내 남자친구는 성격이 매우 밝다. 대구 사람이어서 그 특유의 억양으로 사투리를 하는데, 거기에 가끔 재미있는 농담을 섞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곤 한다. 또, 마음이 여리고 너무 착해서 남한테 실은 소리는 절대 못하는 성격이다. 물론 그런 그의 착한 마음씨에 끌려 사귀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함부로 대할 때, 아무 소리 못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었다. 어쩌면 내 성격과 조금 비슷해서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더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자신의 단점이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나타나면 더 싫다는 것을 그때 느꼈다. 아무리 서로를 좋아해도 연애를 하다보면 부딪히게 마련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내 남자친구는 자신의 의사 표현이 분명하지 않아 나를 답답하게 만들 때도 있었다. 무언가가 싫으면 하기 싫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지곤 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도 마음이 불편하게 된다.

채팅으로 만난 그녀와의 장면

T. J

장면 1. 우리는 채팅으로 알게 되었다. 사실 생각해 보니 폰팅을 더 많이 한 것 같다. 깊은 새벽, 평소엔 잘 하지도 않는 채팅을 해보겠다고 S클럽사이트에 접속을 하였다. 단지 누군가와 어떤 이야기든 하고 싶은 그런 날이었다. 그런데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사라져서 접속을 끊을 참에 그녀를 만났다. 체질에 맞지 않은 탓인지 서먹했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술술 풀렸다. 이야기 도중 서로 있는 곳이 가까운 곳임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락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채팅보다는 전화로 서로의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지금껏 함께 지내고 있다.

장면 2. 많은 연인들이 그렇듯 우리도 많이 다투었다.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서로에게 기분을 상할까봐 조심히 말하며, 혹은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참고 넘어갔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편해지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살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살아온 환경과 생각하는 방식 등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습관·생각 등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했다.

장면 3. 여자친구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

또, 가끔 서로의 생각이 달라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원래 꼼꼼하고, 해결할 일이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라서 좀 문제다 싶으면 같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덮어두고 서로 이해하면서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가 우리의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끼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항상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남자친구도 하나하나 따져들고 말도 하지 않으려는 나에게 피곤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오해만 키워갔던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서로의 성격과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혼자 넘겨짚게 되어 오해와 갈등만 커지게 된다.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했던가. 요즘 나는 얼마 전 입대를 한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많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끼곤 한다.

나는 '인연'을 믿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누군가를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은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다. 내가 만약 이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그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를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것이라 생각한다. 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마음을 열면 누구보다도 멋진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 '난 이런 음식은 이래서 좋아라, 난 이런 느낌이 들어.' 등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느끼는 것들을 잘 말해준다. 이와는 반대로 난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걸 싫어하는 편이다. 내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잘하지 않을뿐더러 20여 년을 그렇게 살아온 터라 고치기에도 무척 어려운 것이었다. 게다가 여자친구가 애써 물어봐도 잘 대답하지 않는 편이었다.

장면 4. 다름이 일어났을 때 둘 중 한쪽이 먼저 화제를 환하고 그로써 다름은 끝이 난다. 몇 번은 다름이 심하여 헤어짐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다투다보면 이해해 달라는 혹은 너를 이해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 마련이다. 난 이 말들을 되도록 쓰지 않으려 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늘 부적절한, 부족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이 아닌 이상. 그러기에 난 여자친구의 생각이나 행동 등을 이해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려고 한다. 그것이 잘 안되어 다름이 일어나지만...*

장면 5. 가끔 여자친구는 내게 사랑이 뭘까? 라며 묻곤 한다. 그때마다 난 웃어넘기거나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 그렇다고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어 온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진다. 달라진다고 여자친구가 싫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느끼게 되는 생각과 감정으로 인하여 '전에는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것이 사랑인가 보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장면 6. 항상 자신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 안부 전화를 할 때면 항상 '잘 지내니? 밥은 먹었어? 학교는 다닐 만해? 어디

아픈 곳은 없구? 용돈은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묻곤 한다. 게다가 내가 목소리라도 작거나 힘이 없으면 무슨 고민 있냐며 걱정을 한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말해주며 힘들거나 괴로울 때도 나에게 거름을 주는 그녀는 가끔씩 물변하기도 한다. 아주 싸늘하고 냉정한 무관심. 그럴 때마다 사실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

장면 7. 이제 만나 온지 3년 가까이 됐다.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일 것이다. 주위에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사귀는지를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질리지도 않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다. 3년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나에게서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닌 듯하다. 또한 여자친구와 지내오면서 여자친구에 대해 오히려 궁금해지고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

장면 8. 나와 그녀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사랑스런 나의 짝꿍, 그녀 이야기

무명씨

우리 애인은.....

어쩌다 우리 집이 비는 날이면 놀러와 함께 있다가 혹시나 부모님에게 들켜도 전혀 의심받지 않지. 그리고 정말 그리운 날에는 서로의 집에서 하루쯤 자고 갈 수도 있고. 집안끼리 아는 사이냐고? 결혼할 사이냐고? 오-전혀 아니야. 양 부모님 모두 우리 관계를 알지 못하시거든. 나와 친한 다른 애들과 다른애는 여자친구, 여자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잖아? 매일 드나드는 그 여자친구가 바로 내 애인인데 말야. 사랑스런 그녀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 알콩달콩 짝꿍! 지금부터 내가 짝꿍을 만나게 된 얘기를 차근차근 꺼내볼까?

나는 미팅, 소개팅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때 한번 재팅으로 남자를 사귀어 본 이후로는 위험부담이 큰 모험은 관두기로 했지. 당시에는 사람이 간절해서 방법에 상관없이 만남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만나는 내내, 내가 이 애를 정말 '좋아해' 하는 걸까? 란 여차구니없는 질문과 불만 때문에 얼마 견디지 못했거든. 한마디로 그건 사랑도 아니었고, 집착으로 일쑤였던 연애에 불과했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는 건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라고. 성실히 상대에게 임하지만 무슨 직책 맡은 것도 아니고 마음까지 상대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걸 느꼈다고나 할까. 뭐 여하튼 시시껄렁하고 유치한 연애는 고3초, 그렇게 끝났어.

그 뒤 작사망한 남자와 일년 남게 사귀었고, 서로를 이해하기엔 오해의 골이 너무 깊어 서로 다른 길을 가게됐지. 그 뒤 1년이 지나고 21살, 작년에 나는 드디어 그녀를 만나게 된거야. 그 전까지 고등학교 시절에도 늘상 보이쉬한 여자만 발견하면 친구들에게 "저 여자, 맛있지?"라고 종종 얘기해. 애들은 저놈이 언젠가 여자친구 만들어서 나타날 거라는 집착을 그때부터 했었다나? 후훗.

여자를 보고 두근거웠던 적은 딱 한번 있었어. 반화 축제에 갔다가 hide 코스프레를 한 언니였는데, 크고 날카롭고 진한 눈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 그 언니가 있었다면 부스 주위를 몇 번이나 서성였는지 몰라.

나는 친구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여자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지 알게 됐어. 그 말을 여러 번 듣고서야, 비로소 심각하게 내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지. 주로 인터넷을 뒤져 알아봤는데, 갖가지 동성애 용어를 정리해 놓은 곳 부성미미군, 특히 레즈비언을 남성적, 여성적 역할로 나눠 부치와 뽀으로 정의한 게 재미있었어. 주위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깐 그런 말들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친한 친구 녀석과 내 남자친구에게 "요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중이야"라고 말했던 걸로 봐서, 그리 심각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드네. 곧 오래가지 않아, 난 그 고민을 관두게 됐거든. 동성애자하면 모든 것에서 소외되고 불리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남들보다 손해 보기 싫은 마음에 그만 둔거지. 또 고3 때였으니까 내 시기가 중요하다는 핑계로 그냥 덮어두었지. 내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기보다, 오히려 동성애를 알아보고 나에게 불리한 점을 파악해 도망쳤던 것 같아. 여자와 연애가 가능하다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었으니까.

대학교에 들어와서야 뒤늦게 현실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시작했어. 실제로 내 주위에 동성애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이 사랑을 하는 법이나, 겪고 있는 고민들은 여느 연인들과 다를 바가 있더라

고, 초기에 갖고 있던 게이에 대한 혐오감도 친구를 통해 전해들은 그들의 연애와 또 실제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지. 어떻게 보면 난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난 평생동안 남자와만 연애를 해야했을테니까. 여자에게 애인은 꼭 남자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자연스럽지 않아서? 글썽……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잖아? 열심히 일만 하면, 행복한 삶이 내게 올까? 난 여태껏 북한은 천하에 몸을 적들만 가득한 곳이라고 배워왔는데 정말 그럴까? 그저 다른 것일 뿐인데, 왜 나와 다른 것은 모두들 그렇게 적대시하는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기보다,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알려는 마음이 우선 이어야 하지 않나? 결혼과 연애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 온 그대로 남녀 사이여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독일인가. 외국에서는 학교에서 성교육 비디오를 틀어주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인 섹스와 피임법, 그리고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연애와 섹스도 가능하다고 나온대. 상상이 되니? (우리의 그 구질구질한 장자, 난자 비디오와 비교해보면?) 그해 비해 우리는 숨기고, 쉬쉬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서 알아서 해야되고, 콘돔 사용법도 제대로 몰라 위험천만인 연애에 노출되어 있잖아. 그런 고민들은 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지만 지금껏 학교에서는 고민조차 하지 못하게 우리의 귀와 입, 눈을 온통 그들의 힘으로 막아버렸지.

도대체 정상과 비정상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니? 우리 여태껏 너무 지겹고 똑같은 공부만 해왔잖아. 앞으로 만나고 부딪힐 세상은 지금보다 더 많고 다른 사람들이 가득할 텐데 말이야.

Origin of love……영화 헤드워에 나오는 노래. 예전에 우리는 두 사람이 등을 붙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렇게 각기 다른 아이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 아이들을 반쪽 내버렸지. 그 뒤로 사람들은 평생 잃어버린 자기 짝을 찾아 헤매게 되었다는 거야. 그게 여자이건 남자이건 우리는 아직 모르는거야.

새로 알게된 친구의 친구였던 내 짝중을 몇 번 여럿이서 만나게 됐고, 좋은 느낌에 은근슬쩍 대쉬를 해 우리는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됐어. 그 뒤 많은 오해와 이기심으로 불신의 담은 점점 높아져갔고, 만나지 5개월 만에 헤어지게 됐어. 연애를 하면 상대에게 내 모든 걸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 태도가 문제였던 거야. 그 애를 좋아하는 마음만 가득해야 할 시기에 정작 난 그 애가 놓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을 고민하는데 시간을 전부 보내버렸지. 어떻게 보니, 이상한 삼각관계에 내가 놓여있더라고. 사랑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집착과 상처로 얼룩지기 시작했어. 괴로운 날들은 그 애가 나를 택한 결정으로 모두 끝날 것 같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길을 돌아와 그 애를 사랑하기엔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 결국 그때까지 나를 붙잡았던 건 지독한 집착이었다고 나 스스로 시인하게 됐지. (사랑이 아니었다고 인정하는 데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 연애는 한 번으로 족했으므로 더 이상 반복하기 싫었어.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그 애에게 착하게 굴었던 지난 시간이 후회스러웠고, 헤어져 있는 동안 그 애는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심을 보여줬고, 그 모습을 보고 난 그 애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지. 그래서 헤어진 지 한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어.

다시 만난 그녀는 너무 예뻐졌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마다 묻어나거든. 나의 아픔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가 내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거야. 요즘은 얼마나 사랑스럽다고..

짓은 다름으로 서로를 아프게 해도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날 좋아하고 있다는 마음만은 확신하니까 하루하루 그녀와 함께 하는 날들이 사랑스러워. 때로는 지극히 서로를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때의 말없음은 무관심이 아닌 나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사랑이 먼저 있었음을 느끼는 것. 그녀에 대한 이해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거라고, 네게 얘기해주고 싶어. 부디 행복해지기를 바래.



[신문스크랩 속에서 만난 정의] 사랑에 우는 者여, 당신은 사랑을 모른다

이충걸 · 「GQ코리아」편집장

며칠 전 후배의 전화를 받았다.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어요? 안부를 생략한 채 그는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자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고, 죽도록 다가가도 반응이 없다고, 숨이나 한잔 사달라는 목소리는 구차한 추리로 가득했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인생을 끊어 팔지 말라고, 정말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내가 말했다. 그 여자 없인 살 수 없다고 그가 다시 땀뻘이자 짜증이 났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니까요." "그게 사랑이야?" 그러자 학도호국단 같은 단호한 목소리가 내 귀를 울렸다.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죠?"

그러나 그 헛바닥은 뭔가 허무의 입구에 닿아 있는 것 같았다. 하필, 그 날 나는 자신을 찬 사람을 못 잊어 끝없이 들소 못길 같은 한숨을 내 쉰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은 불행과 추위 속에서 차라리 행복하다면 또 다른 친구의 전화도 받았다.

두 통의 전화는 나에게 어질병(정신이 어질해지는 병)을 안겨주었다. 누구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정의한다. 그러나 끝임 없이 착오와 후회를 되살리고, 자아 존중감에 관해 사색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한 그들이 그토록 반복적 음률로 신봉하는 사랑이란 미신일 뿐이다.

대단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인식조차 느낄 수 없다면 그게 사랑일까? 작부처럼 밀착된 채 자신을 부정하는 게, 해독할 수 없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스물 네 시간을 의혹으로 망진하는 게, 상대의 무관심에 전 존재를 매다는 게 사랑일까? 온 몸을 한꺼번에 터뜨릴 것 같은 여실적인 힘, 누를 길 없는 욕망, 사소한 것 하나로 모든 균형을 부수는 것 또한 사랑의 속성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신이 용납한 사랑의 참된 의미를 대신하는 건 아니다.

사랑은 격려하고 또 초대하는 것. 그래서 고독 속에 방치되는 대신 두터운 확보의식 속에서 서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그 사람의 꿈인 나의 꿈, 그 사람의 희망인 나의 희망, 나에겐 그것이 사랑 같다. 그토록 많은 분량의 악역, 결점, 후회, 실패, 입안의 쓴맛을 다 겪은 후 시간이 파괴하지 못한 과거로부터 부드러운 포옹을 받는 것…….

그 날, 나는 술을 사달라는 그들의 주문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랑을 인다는 구실로 충고하면서,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자비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뭐가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다. 무엇을 잘 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소개팅과 미팅에 대한 그리고 만남에 대한 짧은 생각 몽치들

여우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어 가며 생활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타인과 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의도적인 접근도 가능하며 누군가의 소개와 추천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사람의 관계 중에서도 남녀간의 만남은 모든 사람의 관심과 호기심의 시선을 끈다. 물론,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긴장과 재미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만남이 정해진 시간의 틀을 뛰어넘지 못 하고 시종일관 따분하고 지루해지기도 한다.

나의 경우에 소개팅이나 미팅을 가장 많이 접해본 시기는 대학 1년 첫 신입생이 되었던 때이다. 아마도 가장 인간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자유롭고 열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호기심 반, 환상 반을 품고 거부감 없이 선배나 친구들의 추천에 응했고 그래서인지 때로는 재밌기도 하였고 때로는 죽을 만큼 지루해서 상대방 몰래 탈출계획을 짜며 시간을 견디기도 했다.

일단 소개팅과 미팅의 형태를 나름대로 경험을 살려 분석해 보자면 소개팅은 개인 대 개인 그리고 미팅은 여러 명 대 여러 명의 만남인데 이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화근이 되기도 한다.

소개팅 같은 경우는 친한 주위의 사람에게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대면하는 자리만큼, 더구나 일 대 일로 만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성격이 배짱 하나로만 똘똘 뭉쳐져 있다하여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 하여 다짜고짜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순간 주선한 사람의 얼굴이 아픈거리고 미안함과 원망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게도 된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어 쉽게 가까워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정해진 시간을 미팅이라든지 다수의 모임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그래서 소개팅의 경우에는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싶다.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 하는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긴 밤색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주위에 신경쓰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보다 쉽게 서로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대화도 오고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팅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골라보는 재미도 있고 상대방 중에 그나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확률도 소개팅에 비해 높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부담이나 자괴감도 훨씬 덜 하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같이 참여한 친구들과 재미있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볼 수 없으며 소극적인 성격일 경우에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낸 용기도 수포로 돌아가기 쉽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에게 있다. 짧은 순간에도 자신의 매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소개팅이나 미팅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아볼까? 나의 경우에는 성격도 직선적인 편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는 조금도 같이 있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서 초반에 예의 없이 끝고 여러 가지 실례를 저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솔한 행동보다는 센스 있

는 대처방법으로 서로 간에 기분 상하지 않게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도 있는 법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서로 노력을 보이면 미안한 마음에서 측은지심이 싹틀 수도 있다. 그러나 이조차 헛거울 때가 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어느 수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참으면 핏병이 생길 위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주선자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알리고 -따끔한 경고의 말 포함- 주선자의 도움을 얻어서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 혹은 아주 친한 친구, 가족, 선택의 도움을 얻어 탈출하는 방법 - 때로는 그들을 팔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아주 긴급한 전화라든지, 상대방의 기분조차 고려할 상황이 아닌 극악 처방을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주위 친한 이성을 이용하여 애인 몰래 소개팅이나 미팅을 하러 나온 다소 불쌍스럽고 도덕성에 무리가 있는 인간임을 자처하는 방법도 있다. 아주 예의가 없게 굴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멍청한 짓을 스스로 태연자약하게 행동에 옮겨 자신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정이 짙,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적재적소에 기지를 발휘하여 행동에 옮긴다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식을 깨면 생각보다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앞의 경우와는 상반되게 상대방과 재미있게 시간을 때우고 실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된다. 대부분 가벼운 술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일 대 일로 만나는 소개팅에서는 첫 대면이니까 가볍게 할수록 좋고 미팅에서는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분위기가 침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이라든지 특징을 빨리 파악해서 배려하는 상황 속에서 무리 없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개팅이나 미팅에서는 서로의 조그만 생각의 변화가 일회적 만남으로서가 아닌 지속적인 교우관계 혹은 더욱 특별한 만남으로 발전된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세상에 따지고 보면 인간만을 외로운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곁에 타인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눈길과 목소리와 손길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흘러야 안도한다. 인간은 그래서 더욱 매력적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답다는 것 아닐까. 이렇게 주어지는 만남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혹은 어깨를 살포시 짊어주기를 바라지만 말고 자기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어깨를 짊어 주면 더 쉽게 풀리는 것이다. 아무쪼록 순간순간이 후회되지 않도록 재미난 만남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래본다.

소개팅과 미팅에 대한 그리고 만남에 대한 짧은 생각 뽀치들, 어상!

그녀와의 만남

레인보우 피쉬(<http://cafe.daum.net/cauqueer>)

음... 10월 중순쯤. 예인과 헤어지지 세 달.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누군가와 만나고 싶다는 욕망에 젖어 있던... 그런 때였다. 한 오빠가 소개팅을 제안한 것은. 난 당연히 받아들였다. 꽤 뜸뻍 있었으면 듯. 처음 해보는 소개팅에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약속장소에 나갔다. 모든 소개팅이 그렇듯이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말들을 위로한 채.

음... 오후 7시 정도. 검은 컷트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 역시 직장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꽤나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맥주를 몇 병 두고 주선자인 그 오빠는 나갔다. 무슨 얘기를 했더라... 사실 첫 느낌이 좋아서 이것저것 물어봤었다. 별로 말주변이 없는 나와 그 사람 역시 조용했기에 어색함을 어찌 못하고 짧은 만남을 가졌다. 그 멀게 같이 맥주를 마시면 때보다 돌아가는 길. 같은 지하철에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 가는 말들 속에 천천히 한 걸음씩이라는 신중함이 엿보이던 그때. 사실 난 40분이면 가는 집을 반대방향으로 돌아서 두 시간 가까이 걸려 집에 도착했다. 물론 그 시간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적이 거의 없는 나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처음 몇 주 동안 무언히도 연락했었다. 만나지 못하기에 더욱 환상을 키우듯이. 새로운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소통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어떤 때는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새로운 것은

어쨌든 일상의 지루함을 덜어 주기에.

그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느낌이 좋은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기에. 첫 소개팅이었고, 그 후로 아직 소개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처음 시작은 행운이었다고 해야 할까. 먼저 나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 그 오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사람을 만나는 데 성별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섹슈얼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성에 대해서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일 뿐이다. 내가 레즈비언임을 아는 사람들조차 소개팅을 얘기할 때 그렇게 묻는다. "너 레즈비언 아니었어?" 라고.

말이 쓰이는 단어이기에 그에 따른 당연한 연상. 그 틀은 악함에도 너무 강하다. 그럼 레즈비언이 남자를 만나겠는가. 이미 잊혀지고 있는 추억이 되어버린 어느 한 때의 얘기이다. 그런 조그만 편견에 쉽게 분노를 느낀 나에 대해 조금은 조소를 남기며.

[그 언니 그 만화]

연애에 대한 단상

min / mintmin@unninet.co.kr



어제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파란 잎이 돌아나뭇이(음지에 독버섯들이 꿈틀대듯이, 음하하) 겨우내 잠잠하던 커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잠깐 그러고 보니 p→q이다의 정석의 대표명제는 '봄이오면 커플이 활개를 친다'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커플들에게 개인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때론 '헛! 재네들 왜 저렇나?'하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더 싫은 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자신들의 행동(아무데서나 무지하게 쪽쪽대며 자기들끼리만 남남코하고...)들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당신은 보수·도덕적이어야 하는 말을 뱉어내는 겁니다. 자신의 관습적이고도 전형적인 연애행각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이죠.

제 주변에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전형적인 연애패턴들에 집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연애'라는 게 다 그렇지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다르게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것 같네요. 남과 다른 무엇이든 연애가 아닌 것 같고, 남처럼 하자니 그동안 비웃어준 것이 떠오르면서 지독한 모순에 시달리게 되기까지 하구요. 이 상

황에서 '천년만년 갈 것 같나! 이놈들아~' 말이 오로지 저를 곳곳하게 지켜줄 뿐입니다. 뽀 - -

그럼에도 이 척박한 세상에 연애만이 유일한 안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애의 환상을 믿고 살지 않지만 때론 연애가 그/그녀를 구원하는 현장을 목격할 때 말이죠. 연애를 하면서 지독히 외롭던 그/그녀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물론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 안의 고독함과 쓸쓸함을 타인을 통해서 치유 받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때론 쓸쓸한 결말을 내더라도 말이죠.



이런 위험한 불구멍이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 '언제나,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연애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만화 [죽음과 그녀와 나]의 유카리와 우유사쿠의 사랑은 그래서 더 따뜻하면서도 슬픈 느낌이 납니다. 어릴 적 크게 앓고 난 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유카리. 하지만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그녀를 혼자이게 만들고 말죠. 그런 유카리와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유사쿠의 만남은 운명이 정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자신의 미래의 연인이 내는 소리를 듣게되면서 그들은 만나게 되는데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쓰다듬어 주는 그들의 관계를 보면 연애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묻습니다. '넌 개가 어디가 좋디?', 그러면서 '나는 왜 **를 좋아하는 걸까' (**는 왜 나를 좋아하는 걸까), '넌 언제

부터 **를 좋아하게 된 걸까'라는 즐거운 궁금증에 밤을 새기도 하죠. 만화 [가면 속의 수수께끼]의 평범한 여고생 호천은 텅빈 교실에 앉아 있던 송적의 뒷모습에 갑자기 사랑을 느끼더니 '나는 왜 송적이를 좋아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은 결국 그들의 존재를 위협할만한 것이 되며 그/그녀를 만나지 않게 되는 시간들에 대한 끝없는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호천이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송적의 미스터리어스한 삶을 벗겨나갑니다. 호천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을 예전 누군가가 수수께끼를 풀어야지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상대의 수수께끼를 풀어야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앞송달송한 이야기는 결국 연애는 상대방을 알아 가는 과정이라는 20c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처음 연애를 하는 사람에게 또는 희망적인 연애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진]을 숙독한 후 연애의 전당에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새로운 연애만화의 고전인 [그 남자, 그 여자...]에 나오는 유키노와 아리마의 관계는 연애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만 신경 쓰던 유키노가 연애를 통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지고 솔직해지는 모습은 너무나 호뭇하죠.

연애관계를 통해 자신을 알아 가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 일일까요? (물론 모든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찾아나가고 자신을 긍정하게 된다는 것은 큰 삶의 기쁨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에게서는 자신을 긍정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역설적으로 연애는 무의식적인 지독한 자기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2.

여행(旅行),
약간의 불안감을 동반한
싱싱한 자유의 냄새



제이의 우당탕 중국 여행기

제이



2001년 여름 아르바이트로 번 돈 조금. 중국에 대한 강한 관심.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한 내 머리와 가슴.

모든 것이 나를 떠나게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상황이었다. 해외에 나가는 건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여행사를 통해 편히 갈 수 있는 패키지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는 장난이 아니었다. 차라리 유럽이나 호주 등지의 소위 선진국에나 갈 것이지 그 위험하다는 중국으로 가려고 한다고 걱정하시면서 꿈이 뒤송했다니 몰래라가 유럽이라느니, 어떻게 해서든 여행을 못 가게 하려고 하셨다. 하, 지, 만.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으로 가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기를 일주일. (마음만 가아지, 했지 준비는 여름방학이 다쳐서야 시작했는데 이건 정말 안 일한 생각이다. 앞으로 준비상 없는 여행이 얼마나 고달팠는지에 대해 논문의 고백이 나올 것이다. ㅠ.ㅠ)

먼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고(여권 사진은 가능한 이쁘게 찍

는 게 좋다. 나 같은 경우는 바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찍었는데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사진 못 나와서 후회하는 경우와 같다.) 배표 예약을 했다. 왜 비행기를 안 타고 배를 타고 갔냐고 여러 사람이 묻는데 대답은 간단하다. 비행기보다 배가 훨씬 싸다. 특히 여름 방학철이 되면 왕복 티켓을 학생할인 해주기도 한다. 물론, 비행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 밑미를 합지도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 어쨌든 나는 서울시 마포에 있는 '위동페리'라는 곳에서 청도로 들어가는 배표를 예매했는데 '위동페리'에서는 위해, 청도, 상해로 들어가는 배가 있다. 굳이 청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어를 전공하는 친구의 권유로 청도행 티켓을 끊었다. 언제 들어올지를 몰라서 편도만 끊었는데, 돈이 조금 아깝긴 했지만(왕복이 더 싸다는 건 다 안다.) 충분히 중국을 여유 있게 돌아보고 싶거나 중간중간 만나는 여행객들과 외기루방에서 여행지를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편도로 끊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국 현지에서 배표를 사야하는 사람은 미리 몇 일 전에 예매를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비싸다.

어쨌든 이것저것 바라바라 싸들고 서울로 상경했다. 어디론가 떠난다는 설레임보다 나를 가로막는 무수한 방해 요인들 때문에(이 얘기를 하자면 논문의 3막 4일이 걸린다. ㅠ.ㅠ) 짜증이 났다. 한국을 빨리 탈출해야했던 신념으로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로 향했다.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은 동안현 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 가면 기본 요금 정도 나온다. 터미널 근처에 E-마트가 있어서 필요한 물건은 거기서 사도 된다. 라면이며 고추장이며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 편이 수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배 시간보다 1시간정도 일찍 가는 게 낫다. 특히 선상비자를 발급받는 사람들은 서류를 받아서 가야하기 때문에 일찍 가야 한다.

→ 여기서 선상비자란?? 나는 준비를 늦게 했기 때문에 비자발급 발품떨던 시간

이 없었기 때문에 선상비자를 받아야 했다. 선상비자는 배를 타는 사람들이 받는 비잔티움에서 서류를 받아서 중국 현지에서 서류와 20달러를 주면 한 달짜리 관광 비자를 내주는 것이다. 보통 비자보다 비용이 조금 비싸고 체류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내치할 게으르거나 편하게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해줄 만 하다. 그다지 어려운 건 없으니 여행 떠나기 전에 간단히 선상비자에 대해 조사해서 가면 아주 편하다. -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청도까지 17시간 정도가 걸렸다. 이 시간이 정말 지루하긴 하지만 배에서 만난 다른 여행객들과 마음만 맞으면 술도 함께 마시고 이런저런 여행일정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어느 정도 바다 위에 떠있는 시간이 짜증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이 자기 하기 나름이다. 니나노 - 놀다보니 청도에 도착했다. 잠잘 숙지에 다가가다고 생각하니 까 가슴이 벅차 올랐다. 드디어 내가, 중국엘 왔구나. 하는 감격에 눈물이 날 뻔했다. 떨리는 가슴 진정 시키고 한참을 기다려 배에서 내리면 중국 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한다. 안경을 벗어보세요, 왜 왔습니까, 하는 어려운 중국말로 사진과 사람을 대조하고 여권이 풀려져라 검사하고 정말 선심 쓰듯 선상비자를 내준다. 외국인에 대한 시선은 어딜 가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면 싸구려 여인숙과 삐끼들이 가장 먼저 반긴다. 삐끼들을 무시하기란, 특히 중국 삐끼들을 무시하는 것은 무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시할 수 있는 경이 생긴다. 중국 사람들 무섭다. 끝까지 쫓아오는데 환장할 노릇이다. 무시하려고 노력하라. 그리하면 중국여행이 편해진다. 단, 무시한다고 해서 끝보라는 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깔본다고 생각하는 일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 여행객을 살인하는 사건이 종종 터진다.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못된 몇몇의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자기 민족을 깔보는데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땠겠는가?

부디, 중국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을 깨고 여행을 하길 바란다.

청도는 중국 현지에서 유명한 관광도시다. 유럽인들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많이 살던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럽풍의 건물이 많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해변에는 외국인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해수욕을 즐기고 정말 잘 닦아놓은 도로는 비교적 한가하다. 아아 중국 여행 중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도시가 아닌가 싶다. 지금도 청도는 꼭 다시 가고 싶다. 청도에 가면 해수욕을 한 번은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모든 것에 돈을 매기기 때문에 해변도 사용료를 내야한다. 해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장료를 내고 파라솔 사용료도 내야하는데 처음엔 익숙지 않았다가 나중엔 차츰 적응이 되었다. 나중엔 아줌마, 아이스크림 파는 소년, 수영복 빌려주는 아저씨한테 너무너무 친절해서 함께 사진도 찍고 음식도 나눠먹기도 했다. 너무 자주 갔었나? --:

청도에서 이틀정도 머물면서 열대과일도 사 먹고 해변에서 책도 읽고 중산공원에도 가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다는 청도대학에도 갔다. (정말 많았다. 내 귀에 들리는 게 다 한국말이었으니까.) 앗, 청도에는 투다리도 있었는데 나는 신나서 투다리에서 소주를 깬다.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건 무지하게 갑동적인 일이다. 청도에서의 아쉬움을 위로하고 북경으로 가기 위해 기차표를 끊으러 청도역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 마침 중국의 대휴가절이라(중국은 휴가철 인구이동이 장난이 아니다. 인구 많은 거 어떤 사소한 일에서도 느낀다) 표가 한 장도 없었다. 어를 어찌지, 손톱만 물어뜯고 있는데 내 김새를 눈치 챘는지 비쩍 마른 소년 하나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한다. 한 마디도 못 알아들었는데 어쉴른 영어로 티켓이라고 하는 소리는 알아듣고 표 있냐고 물어봤다. 물론, 한국말로 그 녀석도 답답했는지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뭐라고 하더니 티켓을 내민다. 압표상이었다. 오호라 - 압표라도 사야겠다 싶어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700원이란다. 짜~ 원래대로 사면 200원정도하는 표가 700원이라니 놀고싶었다. 중국말 한마디 못하는 내가 원망스러웠다.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역 광장에서 한국말로 소리치면서 중국말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있으면 도와달라고 애원했더니 이 녀석들은 공안 부르는 줄 알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저 녀석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쫓아가면서 한국 사람을 예타게 찾았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화교 분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 분은 압표 상인과 한참을 흥정을 하더니 350원으로 깎으셨다. 아~ 드디어 나는 북경으로 가는 거다. 그 분께 고맙다고 머리 조아려 인사드리고 북경으로 출발했다. 내 손에는 겨우겨우 마련한 북경행 티켓과 북경 지도가 쥐어져 있었다.

청도에서 북경까지 13시간인가가 걸렸다. 중국 기차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침대칸과 의자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라처럼 복신하고 뒤로 제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다. 직각으로 뾰 뚝 딱한 나무의자다. 침대 칸은 3층으로 침대가 놓여져 있고 표에 몇 층인지 표기되어 있다.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주변에 배낭여행 온 한국 여행객들에게 물어봐서 알았다. 여기서 내가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올테니 여행가기 전에 사이트를 검색해보거나 현지에서 알아보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주로 의자칸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침대칸은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이용한다고 한다. 그런 거 생각하니까 조금 졸졸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에어컨이 나오는 침대칸에서 편하게 코골면서 자면서 북경으로 갔다.

내가 도착했을 때 북경은 아침이었다. 숙소를 구하는 것이 시급했는데 다행히도 기차에서 만난 한국 여행객이 북경 교원반점이란 곳을 소개해줘서 교원반점으로 가기로 했다. 교원반점은 중국 한국 배낭여행객들에게 제일 유명한 곳이다. 인터넷 카페도 개설해놓고 교원반점에서 무었

든 사람들이리 교류도 하고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알찬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다. 중국 갈 사람들은 한 번 꼭 가보는게 유익할 것이다. 교원반점은 북경 역에서 20분 버스를 타고 남역에서 하차를 하면 바로 있다. 20분 버스를 어디서 댔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나도 물어 물어 간 기억이 있다. 교원반점은 그야말로 배낭여행객들의 천국이다. 유럽인, 미국인, 중국인, 한국인 등등 여행객들이 모여서 이면저면 얘기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최적의 곳이다. 특히 한국인들이 여지나 많은지 나중에는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거의 매일이라는게 문제긴 했지만.....

북경에서의 기억은 유혹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초에 계획했던 만리장성이라든가 이화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꿈도 안 꾸고 북경의 압구정동 산리풀에 가서 나이트와 술집을 섭렵하고 다녔다. 술값은 술내기보 대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고쳐서 빌붙어 가기도 하는 등의 기괴한 방법으로 배워나갔다. 게다가 내가 북경에 있을 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결정되는 날이라서 북경은 온통 축제분위기였다. 그 분위기에 나도 휩쓸려 흥분의 도가나인 북경 거리에서 밤새도록 놀았던 기억이 난다. 물론, 나름대로 알찬 생활도 했다. 그 유명한 경극(교원반점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경화반점이 나오는데 거기서 공연을 한다)도 구경하고 북경 요리도 맛보고 자금성에도 갔다. 아아, 이런 것들을 다 쓰자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북경에서 휘황휘황 술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문득 상해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상해엘 갔고 상해에서의 기억은 매연으로 뒤덮인 하늘밖에 없다. 살인더위 속에서 상해 중심 거리를 걸었던 일, 음식점에서 아무거나 시켰다가 피 본 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았다. 상해에서 청도로 천진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쓰려고 했는데 얘기가 길어졌다. 하

지만 이걸 중국 여행기의 새발의 피도 안 된다. 중국 여고 가장 감명받은 것은 자금성도 천안문도 상해의 야경도 아니다. 중국 사람들의 생활이다. 중국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롭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어떻겠지도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만 살아간다. 심지어 길거리 한 복판에서 남녀가 진한 키스를 장장 30분에 걸쳐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누가봐도 싸구려인 물건을 고가라고 속여 팔다가 걸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원래의 가격대로 받는 사람들이다. 합리적이고 자유롭지만 방종하지 않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여유롭고 느그러움 차재였다. 나는 올해에도 중국엘 간다. 중국만 벌써 3번째라 사람들이 의아해 하기도 한다. 갑자기 중국에만 10번째라는 어떤 사람이 생각한다. '중국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곳이에요. 떠나는 순간 다시 가고싶다고 생각하게 만료죠.' 그렇다. 나도 중독된 것이다. 중국의 매력에, 아~ 너무나 가고싶다.

Tip! Tip! Tip!

1. 중국 여행을 가기 전에 최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www.jalingsoblog.com 인터넷 카페 '고려민가정'

2. 중국 음식이 많이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준비해가면 좋다. 큰 백화점에 신민면이 판매되고 있어서도 하고 중국 고춧가루도 살면 하지만 중국 고춧가루는 너무 느리고 신민면은 안 파는 곳이 많다.

3. 중국에 가면 무조건 컵는다. 외국인에게만 컵 배운 컵을 때는 중국 사람도, 외국엔 컵이 사지도 하는데 컵은 소련이 생기면 아주 쉽다. 중국말을 몰라서 국민이면 전자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컵을 찍으면 된다. 부딪히면 도난 사건이다.

4. 중국의 물가는 원(위안) 단위로 1원 617원정도 했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은 많이 비쌌을 텐데도 꼭 알아보고서 하고 한국에서 비싸다는 경우도 있고 현지 한국인 상인에게 따지는 경우도 있다. 한민족이면 한국에서 비싸게 느껴진다.

5. 또한 테이일에 가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장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엌을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나 하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중국 농산물로 교환하는 한국 농민을 생각하면...

6. 우리 여행기가 너무 짧고 빈약하기 때문에 본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메일 보내주세요. 성심성의껏 답해드릴게요. 중국 외에도 우리나라 무전여행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메일 주세요. opt1216@hanmail.net

M. T 및 여행 적극 추천!



안면도, 가보셨나요?

텔레-비타민 편집위원회

눈으로는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고, 귀로는 윙윙이는 파도소리와 정겹게 지저귀는 새소리, 코로는 신선한 바다냄새와 향긋한 솔향기를 마시며 배낭하나 짊어지고 안면도로 떠나 볼까? 안면도 최고의 장점은 뭐니 뭐니해도 "바다와 자연휴양림을 동시에 즐긴다!"가 아닐까 싶어. 나

는 겨울에 갔었는데 사람도 없고 한산한 것이 너무 좋더라구. 성수기엔 엄청 나게 사람이 많고 숙박도 비싸진다고 하니 주의하렴.

1. 일몰 보기, 꽃지 해수욕장에서 지는 해를 보며 모래사장 위에 곱게 마음을 낸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 순통 푸른색으로 변해 버린 서해의 바다 끝 저 멀리에 낙조가 시작되면서 주위는 금방 붉게 물든다. 그리고 붉은 태양이 바다 속으로 떨어질 때면 그야말로 장관.

1년 중 날씨가 가장 맑고 청명하여 시야거리가 멀고 수평선이 뚜렷하게 보일 때인 늦가을. 인근 섬들과 어우러져 낙조가 절경을 이루는 시기가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말 까지도. 안면도 승언리에서 서남쪽으로 4km쯤 떨어져 있는 꽃지 해수욕장은 서해안에서는 태천 해수욕장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 이곳의 낙조는 연산의 채석강, 강화의 석모도와 더불어 서해안 3대 낙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이곳의 낙조 감상 포인트는 해수욕장 오른쪽 바다 한 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할미 바위, 할아버지 바위. 두 바위가 구도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 사이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 붉게 타는 저녁놀이 한폭의 그림 같단다.

2. 새벽, 할미·할아버지 바위로 가는 길이 열린다!

히, 새벽에 모래사장으로 가 보면 달의 힘 때문인지 바닷물이 쭉쭉 빠져있다. 그리고 바다 넘어 멀리 있던 할미와 할아버지 바위로 가는 자갈길이 나타난





다. 주의할 점은 물이 금방 차서 바위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 -_-;;

3. 향긋한 숲 내음, 안면도 자연휴양림

꽃지 해수욕장에서 걸어 나가면 15~20분 거리에

소나무 가득한 자연휴양림이 있다. 약 2km의 안면도 소나무숲 속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와 전망대. 일상에서 매일 끈을 끊고 넉넉한 마음으로 소나무 숲의 내음, 숲길을 지나는 바람소리, 숲가리의 감촉, 숲속의 푸른 녹색을 가슴에 담아오고 싶다면 이 곳으로 가보자.

4. 어떻게 가지? 우리가 이용하기 쉬운 교통편

BUS: 서울 남부터미널에 가면 안면도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있죠!

시간 06:40 / 07:40 / 08:40 / 09:40 / 10:40 / 11:40 / 12:40 / 14:00 / 15:00 / 15:50 / 17:00 / 18:40

버스비용 11,500원
소요시간 2시간 30분



TRAIN: 평택 OR 출발지에서 홍성 가는 기차를 탄다. 홍성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안면도 직행을 탄다.

홍성 시외버스 터미널 → 안면도 40분 간격운행



버스요금 6,100원 소요시간 2시간 10분

5. 구리구리 숙소는 이제 그만, 숙박 추천 '목신의 오후'

숙박은 안면도닷컴(<http://www.anmyondo.com>)이나 고안면(<http://www.goanmyon.co.kr>)에서 숙박을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추천할 만한 업소는 '목신의 오후'. 주변 펜션 만큼 시설이 좋으면서 가격은 민박보다 조금만 더 주변 묵을 수 있다. 원목가구로 이루어진 아기자기한 실내 분위기도 좋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주인 아주머니의 인심과 7마리의 귀염둥이 강아지들(진돗개)! 말만 잘하면 돈도 꺾어주시고 좋은 차도 함께 즐길 수 있을 거다.

홈페이지 <http://www.goanmyon.co.kr/addon/moksin/moksin.php>

전화 예약 041-673-7703

학교에서 제공하는 해외 어학연수 및 세계교육기행 프로그램

2캠퍼스 학생지원처

가.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 1) 연수국가 및 기간: 호주(5주)
- 2) 모집시기: 1년 2회(학기별) 하계 및 동계팀 모집. 학생지원처 홈페이지(www.student.cau.ac.kr) 및 중대신문에 공고예정
- 3) 선발방법: 내부 전형기준에 의함
- 4) 참가비용: 전체 비용 중 약 40% 학교지원

나. 세계 교육기행 프로그램

- 1) 국가 및 기간: 모집공고 시 확정발표(약 10박 11일)
- 2) 모집시기: 1년 2회(학기별) 하계 및 동계팀 모집
학생지원처 홈페이지(www.student.cau.ac.kr) 및 중대신문에 공고예정
- 3) 선발방법: 내부전형기준에 의함
- 4) 참가비용: 전체비용 중 약 50% 학교지원

텔레비타민 총여학생회 1000% 활용하기



3.

대학1년 최고의 선택
텔레비타민 총여학생회
1000% 이용하기

nimotiv-student



Catch me, if you can

Tele-Vitamin

Catch me, if you can

나 잡아봐~라!

그대들의 일평달콤 새콤달콤 비타민, 나 그대에게 명하노니.

텔레비타민 총여학생회를 1000% 활용하라!

이제 눈을 감자. 그리고 상상하라. 그대여.

마리 가보는 텔레비타민과의 대학생활^^파지직!!

3월

눈은 녹아, 봄바람은 풀이 싹을 돋아.

1% 실감나지 않는 대학생활, 하지만 변한 것 없는 평가의 답답함. 사회의 굴레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내가 여성으로서의, 남성으로서의 위치, 그것을 좀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총여학생회는 3월 8일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타 학교와 사회단체와 함께 봄바람을 데리러 간답니다. 우리 함께 봄바람을 맞으러 가지 않을까?

2% 유쾌 상쾌 통쾌한 정보와 우리 학교 안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잡지를 직접 기획, 구성, 편집 등을 할 수 있는 잡지편집위원단을 모집합니다. 끼 있고 도전의 생각만 있다면 언제든 흡수!

4월

스르르르 너는 봄바람을 불리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봄바람이?

3% 하하하하! 드디어 춘곤증의 씨-존! 가끔 여자인 당신은 생라 때문에 혹은 공장 시간 중 피곤할 때 잠시 누워 쉴 공간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잔디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려면 3월에 알지른 슬과 안주가... 4월이면 각 단체와 학생회관에 오븐 되는 여학생휴게실로 와요. 어디에 있나가요? 걱정 마요. 풀리온 그대의 코를 끌어당기는 즐거운 여학생휴게실로 온 행사도 있으니까!

4% 새내기가 몰았다. 남색 종이에 별이 몇 개 붙여져 있는 저게 뭐예요? 아참! 다들 발견할 수 있을는지. 3월과 5월초에 중요게시판에 게시되는 여성뉴스, 직접 참여도 할 수 있는 스티커 설문조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에 관한 뉴스를 함께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이 대자보를 발견해서 꼭 그대의 볼바람 흔적을 남기세요!

5월

거짓말 날은 나일월, 대학에 날을 보냈다.

5% 정말 거짓말같이 잘도 흘러가는 시간. 훌쩍, 이제 이 대학의 흐름을 좀 파악했나 싶더니 중간고사 치르고 유수같은 오월이 되니 온 학교가 떠들썩하죠? 단대별로 대동제를 할 텐데 뭔가 다른 취지를 갖고 어떤 행사를 하고 싶으세요? 여기서 '뭔가 다른'이란 여성주의소모임(여행, 영화, 문학, 연극 등)이나 학회 등의 성격을 갖고 다른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여 재미있는 행사를 말하는거죠. 그런 행사의 취지가 있다면 또한 그런 취지의 모임을 생성했다면 언제든 총여학생회로 오세요. 그대들의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요. 놓치지 마요!

6% 아! 우리학교에서 발행되는 여러 책자가 있는데 이상한 크기의 잡지가 보인다! 선배들도 처음 보는 잡지라면서, 3월부터 계속 모집하고 있던 잡지편집위원단과 함께 만드는 그리고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잡지! 학교 속속 숨어있는 이야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수기도 실어 보낼 수 있는 그런 잡지. 5월에 나오면 다 없어지기 전에 얼른 챙기세요~*

6월

내 주를 즐겁게 하면 행복은 저절로 오고, 이런 일을 더 하게 하는 너는 나를 이고.

7% 이제야 알았다. 1학기는 환상적이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무를 안겨주는 신기부일을. 하지만 만나왔던 사람들과 이리 저리 함께 했던 것들은 기억 언저리에 깊게 패인다. 그리고 총여학생회가 어디서 무얼 했는지 딱히 관심도 없었는데 내 기억의 언저리에 흔적이 남아있다. 라고 어느 누가 고백했다.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볼 일 보는 도중에 집중력은 아주 뛰어나다지? 쿠크~* 바로 그것이었어요! 매달마다 회장실에 걸리는 총여학생회 회장실통신! 이제 그대들의 뇌리에도 알게 모르게 남겨지는 흔적, 그때그때 정보 알아가기를.

8% 가끔 아니 어디에서도 보이는 단란주점 혹은 썬데이클럽 보신 적 있었나요? 사람의 성을 파는 포주들을 아시나요? 그들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감당 받은 피해여성들을 아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기만큼 너무나 큰 도움이 필요한 활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위만큼 짜증나는 편견들을 한번 깨부숴 봅시다. 함께 깨부숴 그대, 문을 두드리시오.

9월

그것 외에 또 다른 애를 줄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그것을 볼까요?

9% 다시 발돋움해보자. 눈을 뜨고 더위가 아직 살짝 남은 안성 교정을 둘러봐요. 아직은 푸르데... 혹시 그대, 자신의 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 있나요? 지금쯤이면 사랑하고픈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은 안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사랑에 대해서도 한 가지 속에 감춰진 않았을까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공식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진리에 자신의 끼어 맞추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 9월에 멋진 영화제를 열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학교에 붙어있는 포스터 유심히 보세요. 우리학교 소모임 [레인보우 피쉬]가 주최하는 퀴어영화제 함께 보러가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10월

아이고,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10% 아이고, 아이고 당황하진 않았을까? 가을이 이 안성에서는 순식간에 벌어지고 사라지는 바람이란 것을. 하지만 걱정마요. 5월에 나왔던 그 텔레비타민 잡지가 또다른 버전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11% 이제 그대들에게 총여학생회가 직접 가을보다 더 가까운 문화제를 안겨드릴 차례인 것 같네요! 그대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열린 문화제로 조금은 답답하게 가슴에 남은 페미니즘에 대해 여러 표현양식으로 나눌 수 있는 자리.

텔레비타민 총여학생회 1000% 활용하기

11월

아이고,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12% 매달마다 발행되는 회장실통신. 2개월마다 게시판에 붙는 여성 뉴스대자보. 하지만 뭔가 옆구리가 설렁설렁한데 왜 이런 걸까요? 11월이 되면 총여학생회는 단대학생회든 모든 학생회가 선거를 준비합니다. 다음 한해를 먼저 생각하고 구상하는 학생회친구들을 선출하는 기간인거죠. 총여학생회도 이제 다음해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의 사람 말고도 함께하고자하는 여러 친구들을 기대합니다. 한 해가 훌쩍 지나갔지만 뭔가 부족한 점도 분명 있었을 터인데 비판은 세차게 하지만 대안의 모습도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대들을 기대해요~*~

13% 하지만 한해의 정리도 있으면 안되겠죠? 총여학생회가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함께 해왔는지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공개하는 대자보 놓치지 말고 검토해 주시는 건 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대의 눈에 쫓겨서 보고 싶습니다.

12월

아이고,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987%는 어디로 간거야? 1000% 활용하라더니! 원래 활용이란 것은 활용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관심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어떤 사람에겐 지금까지 이야기한 딱 13%만큼, 어떤 사람에겐 더 플러스되어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발을 내딛면 상대방은 손을 내미는 그런 균형 잡힌 활용이 되기를 바라며, 나 잡아봐랏! ———!!

김빠진 콜라, 미지근한 냉면,

재미없는 일상에 기운을 줄게,

Make your voice!

페미니즘 학회로부터 날라 온 인사

레몬

텔레비타민 총어학생회 1000% 활용하기

1

지금껏 나는 항상 내 주위에 사각형의 글을 긋고 살아왔어. 의미없는
사람들과 이유모를 웃음을 허비하고, 또 그 웃음은 사람들의 입에서 끈
적근적하고 유혹적인 꿀이 나오게 했지. 결국 내 몸은 온통 그 꿀로 범벅
이 되고 말았어.

하루가 하루갑지 않은 날들의 연속이었어. 정말 온전히 내 눈으로 보
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무언가 내것을 모두 빼앗겨 버리고 있다
는 허탈감. 혼자 있게 되는 밤이면 울려 서러워지는 때도 많았어.

‘이건 아닌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싶어……’

하지만 내 몸 곳곳에 붙어 있는 꿀의 독한 향기로, 나는 항상 잠들어
야 했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말았어. 그래서 때면 괴로워도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2

사각형의 글 안에서 내 눈과 귀는 날로 부글어져갔지. 밖에서 나는 소
리를 때문에 신경을 온통 거기에 빼앗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원하는 마
음속의 울림을 듣지 않고 언제나 타인의 목소리에 예민했지. 그들은 모
두 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 그 평행선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무엇보다 강력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명해. 낙오자는
바로 짓밟아버리지. 세상에는 오직 그 한개의 평행선만 존재한다고 믿
는거지. 보이는 대로만 믿기 때문에 숨어 있는 길은 우물은 발견하지 못
하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던 거야.

내 두려움은 그 평행선에 이르지 못할까봐 생겨난 것이 아니었어. 나
는 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지? 내가 원하고 찾고 싶은 건 오히려
깊이 깊이 숨어 있는 그 우물인데 말야. 쓸데없고, 낙오자가 되는 길이라

해도, 그건 오로지 병행선에 오르기 위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불과한데, 거만함으로 육중한 그들의 무게는 상실해버린 나의 무게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은데 말이야. 왜 한번도 그들의 목소리를 의심하지 않았지? 모두가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뾰족되어진 목소리를 말이야.

3

대학에 들어와서도 난 항상 그 꿈에서 쫓 수가 없었어. 눈이 흐릿한 안개에 휩싸여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난 내 병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야. 그러다 우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됐고, 서서히 난 깊이깊이 쌓여있던 해묵은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지. 말해서는 안되고, 오직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굳게 채워왔던 자물쇠를 그들이 열어주었지.

혹시 지금 너도

편견으로 얼룩진, 답답하고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렴!

김비진, 올라, 이지근한 냉면 재밌는 일상에 기운을 붙여
Make your voice!

이메일: (laxmon21@orgion.net)

010-396-0179

텔레비타민 총여학생회 100%활용하기



텔레비타민 잡지-편집위원회! 수습기자 모집

천천히 잘 읽어 보았나요?

말이 느리다면, 혹은 상에 안 된다면 같이 느린 만큼 물어보는 것
+KOA+KOA?

2% 유래 상대 특이한 정보와

우리 학교 안의 이야기를 묻 수 있는 잡지를

직접 기획, 구성, 편집을 하고 기사를 쓰는 잡지편집위원 수
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이 학교 도전의 생각만 있다면 언제든 환영!

▶자격 조건: 들끓는 마음

▶대상: 03학번 팔말한 녀석들

▶언제: 지금부터 당장

▶어디에 가서 신청하니까?

학생회관 3층 안쪽 연보라색 총여학생회방
별종하면 커뮤니티

<http://home.freechal.com/cauchw18/>

급하면 전화하게 회장 욱스 011-9305-3245

잡지편집위원회 유다 016-9316-1136



Tele-Vitamin

말씀을 움직이는 코류의 에너지,
별개 비타민.